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1. 4. 12. (월)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팀
2	×	○	담당관 : 김동석 (02-3677-2050)
			팀 장 : 장영자 (02-3677-2051)

김종천 과천시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발표

- “4차 대유행 우려… 각종 행사 및 소모임 최대한 자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개인위생 소독, 출입명부 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달라”
- “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과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김종천 과천시장은 12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종천 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했으며,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9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과천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봄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나는 등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완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와 극한의 피로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4월 12일 0시 기준, 관내 누적확진자 135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 간 감염이 37%, 확진자 접촉 등 외부 요인이 63%이며, 특히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28%인 38명이다.

김 시장은 이처럼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와 소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개인위생 소독, 출입명부 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과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겪고 계시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어려움에 대해 마음 아프고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방역당국의 노력과 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다.